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8호 [우계 제24731호] 주제 103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여나가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선군혁명승리자들의 대오가 광명 한 미래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 100년대 빛나는 기상, 약동하는 젊음으로 수놓아지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의 높은 존엄과 영광, 양양한 미래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3년이 되어온다. 이 나날 우리가 걸어온 투쟁의 앞길에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추켜들고오신 선군의 기치가 높이 휘날렸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태양상이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길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천만민을 승리의 한길로 떠밀어준 고무적이었다고 이 땅위에 새로운 번영기가 펼쳐질 수 있게 한 원천이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멸의 선군령도를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임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한평생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주시고 전인민적 힘찬 길을 헤쳐가며 우리 민족사와 인류정치의 선군혁명사상과 불멸의 태양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선군령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초월하듯 강고히 불태워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명도사에서 지난 날 90년대는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신것은 우리 혁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사에 특기할 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인민군대를 주력력으로 하여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무장혁명의 세시대,

선군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이 땅위에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초도의 풍광 사나운 배길, 조국평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선군혁명의 상징인 단발솜 옷과 눈물겨운 강행군현지지도에 새겨진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한 정치가들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같이 이처럼 엄숙한 시련속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은 위인은 일찍이 없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은 나라와 민족의 고귀한 재보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지난 3년간의 존엄하고도 격동적인 혁명실천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의 귀중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고수해나갈 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자주는 절대불변의 신조였고 혁명방식이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나날 언제나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은 철저한 자주 사상이었고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은 가장 건철한 민족자주의 영웅사시적행로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자주적대를 추호도 굽히지 않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기 위대한 장군님의 단호한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릴 수 있었다. 독창적인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력사의 흐름을 자주의 궤도로 확고히 올려세우신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만 이룩하실 수 있는 거대한 업적이었다.

3년간 민족대국상의 나날 세계가 조신의 운명과 전도를 우려하였지만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였고 신념은 확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피어난 선군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주는 생명이었다고 미렷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의 영웅적전군은 세계를 경탄시켰고 원수들을 전복케 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자주 신념으로 시련과 난관도 과감히 맞받아 뚫고갔으며 장군님의 단결과 배짱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민족의 존엄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주체혁명의 세시대,

자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에 관통되어있는 근본정신이다. 국제무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며 자기 신념, 자기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치열한 반제반미결전에서 백승만을 떨칠 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라의 군사력강화를 위하여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그 무엇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6년 3월 20일 은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를 찾아 1,000여리를 달려온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우리는 장군님께서 헤쳐 오신 선군혁명천마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된다. 진실에서 진심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 길에서 우리 인민군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게 되었으며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져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의하여 미제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가 영원히 끝장나게 되었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추켜쳐오르게 되었다.

지난 3년간 우리 공화국을 알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행위는 극도로 달랐지만 선군조선의 장대성과 필승의 기상은 온 누리에 더욱 힘있게 떨쳐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려웠던 강력한 전쟁역적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반미대결전에서 편전편승을 안아올 수 있게 한 무적의 힘이었다. 최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도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 5.2.6 대련합부대와 제 4.7.8 연합부대사회의 쌍방실동훈련과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집결비행훈련은 백두산혁명군대의 무적막강한 위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승리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전통이다.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속물삼고 짓밟아도 안되는 존엄있는 강대한 나라로 세상에 당당히 내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인민의 이름다운 힘과 신념을 앞당겨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고귀한 밑천이다.

우리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남부러움없이 잘사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빛내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노력이었다. 행동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더 좋

고 더 훌륭한것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분이 우리의 장군님이다. 이 길에서 합남의 불길,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기 타고오는 나라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기 위한 투쟁의 불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었고 사회주의의 문명을 보기도 우리 장군님께서 창조하셨다.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뿌리신 만물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창한 변혁의 시대, 우리 인민이 세기를 두고 바라던 리상과 꿈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민족번영의 시대이다. 불과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위성과학자주력지구와 연흥과학자휴양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떠서 로동당탄소세라 도처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새로운 기계공업의 건설, 간석지건설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편지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과학, 교육, 체육을 비롯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의 로고와 배려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총대를 목숨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총동원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튼튼한 토대가 있고 인민사상, 인민중시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당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벌써 양의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은 혁명과 건설의 대배과전사이며 이 고귀한 업적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100%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것이 지난 3년간 투쟁의 력사적증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은 오늘 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 방법론적지침들이 전면적으로 전개되어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 사상정신적향시이라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의 거대한 의의가 있고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혁명적본분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년토대로 틀어쥐고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을 따라 역세에 나아가자

로써 최후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선군령상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는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쳐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미 언저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굳어져야 한다.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아버지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숭배하고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건철한 투사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의 한길로 확신있게 이끌어가는 분이 백두의 천출물장자이며 걸출한 령도자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고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 저작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토대로 빛을 뿌리도록 하시고 력사의 생생한 흔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어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생생선으로 틀어쥐고 굳건한 땅집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원수님의 안명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당중앙의 구상과 결집을 당에서 정결히 실현하며,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정결히 실현하는 강한 혁명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참된 동지, 진정한 선군혁명전우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적이다.

인민군대는 전국에 혁명적평온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충직하게 받드는 전위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력, 완벽한 실전능력을 철저히 갖추고 그 어떤 극악한 조건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시는 전투명령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해나가는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결의 위력을 높이 펼쳐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혹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오늘의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아버지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숭배하고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건철한 투사들로 준비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의 한길로 확신있게 이끌어가는 분이 백두의 천출물장자이며 걸출한 령도자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고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 저작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토대로 빛을 뿌리도록 하시고 력사의 생생한 흔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어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생생선으로 틀어쥐고 굳건한 땅집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원수님의 안명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장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당중앙의 구상과 결집을 당에서 정결히 실현하며,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정결히 실현하는 강한 혁명적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참된 동지, 진정한 선군혁명전우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신양관, 통일평생, 평안남도연양사상에 모셔졌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령도를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63(1974)년 8월 신양관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체농법관철에서 기거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으며 수많은 문건자료들과 농기계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산간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안심이 깊을 판심을 들려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군을 찾으시어 경제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일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광물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곳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와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평안남도연양사상의 일군들과 종원들의 마음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신양관과 통일광산, 평안남도연양사상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창조의 마음이고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로 증중히 모시는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치셨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에서 진행되었다.

모자이크벽화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신양관, 통일평생, 평안남도연양사상에 모셔졌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령도를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아로새기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63(1974)년 8월 신양관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주체농법관철에서 기거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으며 수많은 문건자료들과 농기계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산간지역 인민들의 생활에 안심이 깊을 판심을 들려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군을 찾으시어 경제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모자이크벽화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신양관, 통일평생, 평안남도연양사상에 모셔졌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령도를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안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신양관, 통일평생, 평안남도연양사상에 모셔졌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령도를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김정일 동지 회고 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 동지 회고 노르웨이위원회가 10월 30일 오슬로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숄블라구제친선구락부 총국장 이흐마드 무함마드 알 클레이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3주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동지 서거 3주 리비아회고위원회가 5일 타라부스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숄블라구제친선구락부 총국장 이흐마드 무함마드 알 클레이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3주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동지 서거 3주 리비아회고위원회가 5일 타라부스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숄블라구제친선구락부 총국장 이흐마드 무함마드 알 클레이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3주에 즈음하여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큰 20개 단위가 년간계획을 끝냈다

림업성 아래 각지 사업소들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신양관, 통일평생, 평안남도연양사상에 모셔졌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였던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령도를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사회주의건설장에 더 많은 집을 실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 정 주 청 년 역 에 서 -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만의 심장속에 깊이 체득시키자

송고한 도덕이리의 역사를 가슴깊이 새겨주며

건설진재공업성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건설진재공업성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수형영생업적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형영생업적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르모시고 수령의 영생은 영생불멸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무변에 남기시게 하시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광명성절을 비롯한 중요계기마다 진행하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업을 매우 의의있게 하였다.

초급당비서 김철순동무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업에 앞서 일군들과 정무원들속에 들어가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업적을 완성하는 것들을 자신의 총적목표로,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형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정중히 모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감동깊은 사실들을 해설해주는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런 정치를 통하여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류정치가 가 알지 못하는 수형영생업적의 불멸의 업적을 창조하여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주체조선의 무궁한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었다는 것을 가슴깊이 절감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위하여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정진을 선도하는 기치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 승리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절사모위해나가 맹렬히 다지었다.

수형영생업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아버지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도덕이리의 력사를 새겨주기 위한 사업은 덕성회상심리연구발표모임, 혁명화화와 「수형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에 대한 독모를 통해서도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는 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정무원들과 종업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순결한 망심과 도덕이리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 내부공사에 필요한 돌과자갈을 생산보장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해당 단위에 나간 부비서들인 김인혁, 김동섭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형영생업적실현을 위해 바치오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총정 도덕이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무원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을 세게 울려주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침식을 현장에서 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에 들어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의 돌과자갈을 옥같이 다듬어 나갔다. 하여 석막이 걸려야 할 돌과자갈은 보름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아버지수령님의 찬양이 어려지는 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수형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전담, 전군,

전민을 이끄시어 조선혁명의 전환기를 마련하시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새겨주기 위한 사상사업을 자료를 인발하여 심화시켜 진행해나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보신 구호도 모든것을 수형님의 가르침대로, 모든것을 수형님식대로, 모든것을 수형님을 위하여고 장군님께서 내리신 명령도 수형님의 인민사랑의 송고한 뜻을 받들신 침투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건설명령이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강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진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과 정무원, 종업원들은 비범한 정치적수완과 선진적의 예지, 탁월한 혁명적전격력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이 있어 우리 조국은 주체의 조국으로 그 존엄을 세상에 높이 떨칠수 있었다는 것을 더욱 높이 체득하게 되었다.

교양사업의 실효는 실천정성으로 힘있게 이어졌다. 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물론 산하단위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수형영생업적실현을 위한 사업에 순결한 망심을 다 바쳐나가게 되었다.

영광가건체회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망심을 바치나감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여러차례 내어안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때마다 초급당위원회는 모범적인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투쟁성과를 널리 소개선진하였다. 하여 성안의 일군들과 정무원들,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형님과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백골같은 충정을 다 바치나가게 하였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총정와 송고한 도덕이리를 지니시고 수형영생업적을 빛나게 실현하신 아버지장군님의 송고한 도덕이리의 력사를 일군들과 정무원들, 종업원들속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단위를 수형님사용자의 결정적로 보내어가는 건설진재공업성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자 기 고 장 의 사 적 내 용 으 로

만포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서 만포시당위원회 일군들이 특별히 중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고장에 새겨진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자기 부류,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에 정통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신조로 삼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드는 것이 중요합시다.»

올해 초, 시당위원회는 협의회를 열고 일군들은 협의회를 열고 더 높이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좋은 안들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 고장에 새겨진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장군님을 모시었던 영광의 그날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포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자강도는 오늘 인민들이 신심에 넘쳐 바라보는 희망의 동해, 선망의 동해가 되고있다고 하시던 그날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겨주시어 자기 고장에 대한 농업근로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애국적의열을 총괄시켜 당원들 영웅진위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게 하였다.

혁명사적관람관, 현지지도포식에 대한 해설, 방송선진차와 기능예술훈동대활동, 직관물을 통한 교양사업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된 정치사업의 실효는 대고조실현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고산협동농장, 만포리, 만포고지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은 물론 시안도 높은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상에서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시의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수만명의 수송이 좋은 나무들과 지피식물을 심어 만포시를 사회주의 교양도시답게 더 훌륭히 꾸려나갔다.

혁명사적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올해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시당위원회 선진성동무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고산협동농장, 삼강협동농장, 건학협동농장을 비롯한 수천명의 여러 농장들로 달려나갔고 그들은 농업근로자들과 어울려 농사일을 하면서 절망하는 예술소용공무원대도 펼쳐놓았다. 공원이 끝나게 되면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락원기계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생산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지행위원들에게 분공이 조직되고 그들이 한가지씩 맡아서 뛰기 시작하였다. 기업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여기서 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기업소내부에 모셔져있는 아버지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표식비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내용을 보충하여 비문을 바꾸어 모시는 사업이었다. 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내용을 현지지도사적비와 표식비에 보충하는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넘나들고 다니며 펄쳐나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었다.

당위원회에서는 공화국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김일성-김정일주최의연구실을 더 잘 꾸리려고 구내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하고 영상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지도사적판과 현지말씀판들의 조영등을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체전직장, 대형조기직장, 열처리직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사적이 깃들여있는 건물들을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이 나날에 기업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단위로 더 잘 꾸려지게 되었다.

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도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힘있게 밀고나갔다. 사상전의 집중 화화를 틀어다여 굴삭기생산선

담당한 신포항추직장과 주강, 단조, 제판, 유압기구, 정밀 가공, 일반기계, 시판다직장과 청년직장의 당원들과 로동계는 9월말까지 올해의 유압식굴삭기생산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당조직에서는 기업소의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불을 달아주시어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선회배아형생산공정의 불합리성을 피치하고 이바진 공정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유압식굴삭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게 하였다.

화선선동의 불바람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장백》호굴삭기를 나라의 영광쟁쟁생산자들에게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서도 대형조기직장과 정교기계의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다.

지난 2월 기업소안에 대상설비생산과제가 긴급하게 제기되었을 때에 지어진 박종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파주철거장을 위한 직장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부족되는 원료문제를 풀었으며 기사장 박원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3차 인력포구그램에 의한 대형양수기의 난제를 균형추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방법들을 갖추는 어려운 사업도 끝내 완성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이끄는 뜨거운 열과 정열로 심장을 끓여나가는 이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들의 불같은 실천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빛나게 관철되고있으며 기업소에 있는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은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중점을 틀어질 사상사업의 실효

안 변 군 당 위 원 회 에서

나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도 농장원들이 굳이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업적을 체험을 통하여 절감하는 나날이었고 장군님께서 주신 강령적과업들을 영원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 각오와 의지를 백배로 다져는 나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대중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군당위원회가 절한것은 또한 선진성동렬과 수만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였다는 점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본사기자 손영희

선군사상교양을 실속있게

안악군 선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결집한 용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당원들 영웅진위에서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선군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직관물을 게시해놓아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계속해서 학습하

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제대군인들을 적극 내워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일당배우공적속도가 창조되게 하고있다. 농장의 제대군인들은 돌격대를 뜻고 소용이동식탈곡기를 수습대나 만들어 탈곡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전령로병들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아주기 위한 사업에 사회주의적 사업으로 내밀고있다. 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존엄하고 긍지 높은 삶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새기게 하였다.

하동농민련 령 창 성

본사기자 김순영

본사기자 김순영

본사기자 김순영

비결은 영양알모도입에 있었다

평원군 삼봉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한 모든 눈에 이 방법을 받아들였다. 결국 현대농업발전추세에 맞게 영농방법과 기술을 혁신할데 대한 당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알뜰중심으로 증명하였다. 즉 적은 종자와 노력, 영농자재를 가지고도 영양알모를 키워내어 정보당 논벼 수확고를 높인것이다.

먼저 적은 종자를 가지고 영양알모를 키워내 사실을 보자. 지난 기간 일반쟁상모를 키워내 때는 정보당 150kg의 종자가 있어야 했다. 영양알모를 키워내면서부터 정보당 종자가 60kg이던 총중하였다. 따라서 모만 적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시기 한정보의 논에 벌 일반쟁상모를 키우자면 수백평의 모판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성형알판을 리용하여 영양알모를 키워내면서부터 50평이던 모판이 되었다. 결과 적은 모로써도 영양알모를 키워낼수 있어 대중 자신이 자기이것으로 받아들이었다.

영양알모는 짧은 기간에 키워낼수 있는 편이 좋다. 지난 시기 일반쟁상모는 보통 50~55일 키워내곤 하였다. 그러나 영양알모는 30~35일 키

우기를 하였다. 그리고 씨뿌우기를 비해준 종자 4.5~5kg을 이미 준비해준 영양흙 40kg과 골고루 섞어놓았다. 씨뿌우기에 앞서 해빛조건이 좋은 포전에 모판자리를 만들고 1개당 흙이 수백 개 되는 성형알판을 한도판당 80여개씩 놓았다. 다음은 영양 흙 40kg을 성형알판마다 1/3정도 넣어주게 하였다. 그리고 영양흙과 섞은 종자를 뿌리었다.

이런 방법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는 20kg의 보드라운 부식토로 보드를 하고 모판이 폭 죽게 물을 대주었다가 뽑았다. 며칠후 성형알판의 흙 1개당 2~3개의 모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모판관리로 기술적으로 관리하였다.

모판에 비료를 뿌릴 때에는 물을 얹게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모를 30~35일동안 키우면 알이 3.5~4일 되었다.

일군들은 영양알모를 키워내는 데 맞게 모내기를 계속 개조하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에서는 모내기 일을 5월 7일부터 28일까지 하면서 평당 80~100포기씩 보장하였다. 이것은 일반쟁상모

를 낼 때보다 평당 20~30포기 적은것이였다. 모를 낸 포전에 물은 물을

6월말부터 중간물따기를 하였다. 뿌리썩음병이 생기는 포경들은 2~4일 물을 뺐다 가 뽑고 7일동안 말리었다. 아지는 시기에 논벼의 생육상태를 보아가며 얇은물대기나 포화수익물대기를 하였는데 대체로 한포기에서 15~20대의 이삭이 자라 생겼다. 장마철에는 날씨를 알아보고 3~4일 3일정도 물을 뺐었다.

비료로서는 논벼의 생육상태를 보아가면서 하였다. 이때 생육전반기비료를 주었다.

가을은 9월 하순부터 시작하였는데 논벼중추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삭달 수가 지난 시기보다 많았다.

결과 논벼수출이 일반쟁상모를 키워내 때보다 정보당 평균 1t이상, 최고 2t이내 되었다. 이 농장의 현실은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알뜰중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창 조 의 명 수 들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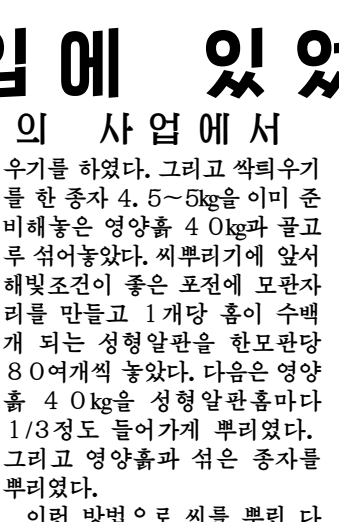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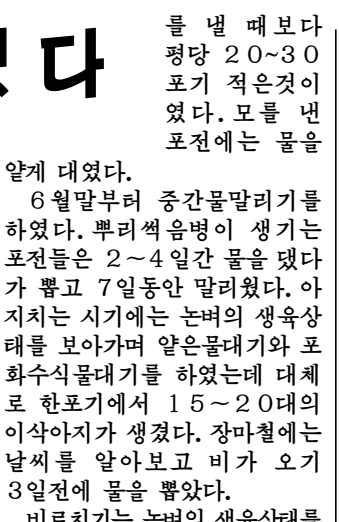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본사기자 김창길



자 기 지 방 의 원 료 를 리 용 하 여 군 내 인 민 들 에 게 식 료 품 을 원 만 히 생 산 공 급 하 고 있 다. -상 성 식 료 공 장 에 서-



본 사 화 학 공 장 조 의 명 수 들



본 사 화 학 공 장 조 의 명 수 들



본 사 화 학 공 장 조 의 명 수 들



본 사 화 학 공 장 조 의 명 수 들

절약은 곧 애국,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물 절약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물처럼 흔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며 쓰는 물을 생산공급하는 데는 막대한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이 든다. 때문에 더 많은 물을 생산공급하는 것과 함께 물 절약은 자못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물보장이 가지는 의의와 물 절약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평양시 상수도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한방울의 물이라도 극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방울의 전기,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사랑심을 간직해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관리국당위원회에서는 국안의 모든 일꾼들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수도사업에 대한 열정을 높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적 사업을 짜고치고 있다. 특히 이곳 당위원회 일꾼들은 절약은 곧 애국이며 애국의 발현이라고 인식 경애하는 현수님의 높은 뜻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놓고

물 절약 사업을 당위론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 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꾼들은 구역들의 상수도 관리소를 비롯한 아배단위들에 내려가 대중의 가슴마다에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명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려는 당의 은정을 깊이 새겨주면서 모두가 물 절약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다.

관리국에서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시안의 전반적인 배수지들에서 물손실을 없애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였다.

관리국의 일꾼들은 배수지들의 물량크를에서 한방울의 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전반적인 물량크들에 대한 보수사업을 진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작전과 기술지도로 짜고들었다. 일꾼들이 직접 배수지들에 나가 물량크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해당 단위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높은 공민적자격을 가지고 물량크보수사업에 한사같이 임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의성을 발휘시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활용하여 배수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로 마련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을 세웠다. 일꾼들의 전투적이며 혁신적인 일본새와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의해 계획되었던 전반적인 배수지들의 물량크보수사업은 질적으로 끝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리국의 일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수로를 통한 물의 도중손실을 막기 위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관리국의 일꾼들은 시수도관리소 일꾼들과 함께 시의 곳곳으로 그물같이 뻗어간 상수관선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물이 새어나오는 곳들과 불비한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해당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일단 물이 새어나오거나 불비한 요소가 발견되면 기계수단과 로력을 집중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퇴치하고 수도 시민들에게 대한 물공급을 보다는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대책하고 있다.

지금 관리국에서는 해당 단위 일꾼들이 책임성과 열정을 더욱 높여 시안의 전반적인 상수관선들에 대한 점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한방울의 물도 손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끈기있게 내밀고 있다.

관리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수도관리소에서는 물도중손

실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보수 작업반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자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해나가고 있다. 관리국의 일꾼들은 보수 작업반들 모두가 수도 시민들에 대한 물보장을 맡았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맡은 초소들을 책임적으로 지체가 도록 하고 있다.

관리국에서는 또한 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 카드식물량계도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물 절약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만도 관리국에서는 시안의 수천개의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 카드식물량계를 도입하였다. 카드식물량계 도입으로 물 절약사업에 대한 대중의 자각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쓰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주인답게 참가하는 기풍이 확립되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카드식물량계를 도입한 단위에서는 종전에 비해 30% 이상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국의 일꾼들은 카드식물량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시안의 전반적인 기관, 기업소, 공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 카드식물량계를 도입할 높은 목표

를 세우고 이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관리국의 일꾼들은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 내려가 카드식물량계도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해당 단위 일꾼들과 노동자들과 근로자들에 널리 해설 선전하는 사업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국에서는 수도의 가정세대들에서도 높은 애국심을 지니고 물 절약사업에 적극 펼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다.

현재 관리국에서는 시안의 여러 아배트들에 카드식물량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을 모든 가정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큰 작전을 펴나가고 있다. 카드식물량계를 도입한 시안의 가정세대들에서는 종전보다 물의 소비를 대폭 줄이고 있다.

관리국에서는 카드식물량계도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는 것과 함께 기관, 기업소, 공장들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과 가정들에서 물 절약기를 효과있게 활용하여 공급되는 물을 극력 아껴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 있다.

관리국의 책임일꾼들은 시안의 전반적인 수천개와 펌프장에서 전동기와 배전반을 비롯한 기계와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는 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기를 극력 아껴 쓰라

9월 방직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원료와 열로, 동력을 절약하는 것은 생산을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9월방직공장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전기 절약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전력낭비를 없애면서 더 많은 실과 천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직장, 교대, 교대에서는 교차생산 조직을 짜고들면서 전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고 있다.

공장의 노동자들은 전기 절약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한방울의 전기라도 절약하고 아껴쓰기 위해 방직설비들의 가동회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전기 절약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3정방직장 정방공들과 1, 2,

3정방직장 직포공들이 전기 절약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시기와 달리 작업교대 시간에 정방기, 직기들을 세우지 않고 인제인수를 짧은 시간에 하고 있다. 소면직장, 권사직장의 노동자들도 전력소비를 줄이고 전기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무동력과 전력감독원들은 직장, 작업반들에 내려가 설비들의 기술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전기설비들을 알맞은 용량의 전기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있다. 10월 한달동안만도 이들은 여러 직장들에서 10여대의 전기설비들을 알맞은 용량의 전기설비로 교체하여 많은 전력예비를 찾아냈다.

공장의 일꾼들은 전기 절약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기술, 생산과의 일꾼들이 여러 직장 기동공들과 장조직지체를 합쳐 방직설비들의 가동회전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공장에서는 배수사업의 정방기, 직기들이 이 기풍을 실천하면서 받아들여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도 실과 천 생산을 높이고 있다. 전기 절약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직장, 작업반들의 사무실들과 작업현장들의 수천개에 달하는 전등은 전력소비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여 여기저기서도 많은 전기가 절약되고 있다. 공장의 일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력의 도중손실을 없애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 있다. 공무동력과 일꾼들은 선로들의 상태를 순검보통 장악하고 전기선들을 교체하는 공사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열매 전에도 공장합숙까지 늘린 수백m의 전기선교체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물 절약사업이 곧 전기 절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방울의 물도 아껴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열매전 수보장을 위한 수천개의 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말보수공사를 교체하여 많이 위실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더 많은 전기와 물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특약기자 동 세 웅



제 품 아껴 쓰든 그 마음은 애국의 도성감도

종전보다 선차적인 석탄이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중산과 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기술혁신에 있습니다.》

최근년간 평철시연료

사업소에서는 전국과학기술 발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종전보다 적은 석탄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이곳 연료 사업소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적의 선열복사체와 저열란초청가재, 가열공기분사식 2중보온불통에 대하여 소개한다.

우리는 여기에 이곳 연료 사업소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적의 선열복사체와 저열란초청가재, 가열공기분사식 2중보온불통에 대하여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열복사체를 불통의 안벽에 바르면 불통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없으며 열이 불통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함뿐 아니라 밖으로 부터 한 공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 열복사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저열란 고열란 처럼 하루 소비하는 석탄량을 훨씬 줄이게 된다.

지금 평성시, 성천군, 증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의 공장, 기업소, 주민세대에 널리 도입되었는데 호평이 대단하다.

2중으로 된 불통의 안불통에 나있는 많은 구멍들로 인한 공기 증분히 공급되어 종전의 불통에 비해 불길 올라오는 시간이 배로 빨라지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평성시의 수천세대의 가정들에 도입되어 온을 내고 있다.

특약기자 리 혁 철

우리는 여기에 이곳 연료 사업소에서 생산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적의 선열복사체와 저열란초청가재, 가열공기분사식 2중보온불통에 대하여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열복사체를 불통의 안벽에 바르면 불통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없으며 열이 불통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함뿐 아니라 밖으로 부터 한 공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 열복사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저열란 고열란 처럼 하루 소비하는 석탄량을 훨씬 줄이게 된다.

지금 평성시, 성천군, 증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의 공장, 기업소, 주민세대에 널리 도입되었는데 호평이 대단하다.

2중으로 된 불통의 안불통에 나있는 많은 구멍들로 인한 공기 증분히 공급되어 종전의 불통에 비해 불길 올라오는 시간이 배로 빨라지는 우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평성시의 수천세대의 가정들에 도입되어 온을 내고 있다.

특약기자 리 혁 철

대용 연료를 효과 있게 리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연료와 동력, 각종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고 기계설비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남포 농업대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연료와 동력, 각종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고 기계설비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남포 농업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발명된 대용연료를 리용하는 발명발견기가 대학의 교수요양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두개의 가스발생장치와 랭각 및 청정장치, 두개의 발전기판과 그 외 갖는 두개의 발전기판과 이루어진 이 발명발견기는 전적으로 대용연료인 알곡부산물만으로 운영된다.

시간당 100kg 정도의 대용연료를 태워 여기에 연어지는 가스로 12.5kW의 순시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결국 대용연료 1kg으로 1.25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셈이다.

전기의 질도 좋아 대학의 모든 컴퓨터들을 가동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용접용기를 비롯하여 전력소비가 많은 설비들도 가동시킬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세워지는 전기로 겨울철이면 60여개의 기술

사호실들에 대한 조명과 전기 난방을 보장하고있으니 참으로 실리가 큰 설비이다.

학생 김기덕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10여년전부터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 생산설비를 제작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하여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을 보내왔다. 가스 발생장치에 대한 난제인 타르 제거를 위한 새로운 기술적창상을 무르익혀 끝내 독특한 방법을 원만히 해결하고 오래된 화물자동차기관을 해리하고 개조하여 효율 높은 가스발동기판을 완성시켰다.

대학의 연구자들이 제작설치 해준 알곡부산물을 리용하는 이 발명발견기를 받아들인 여러 방직사업소들에서 그 덕을 토틈히 보고 있다. 그에 대한 반영이 대단히 좋다.

대학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알곡부산물을 해리하고 나온 재까지 말끔히 처리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의 경험은 절약의 큰 예비가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특약기자

한 방울의 연유에도 강원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운수기동대에서

강원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운수기동대는 원산공민발전소를 비롯한 도의 운수공사장들에 필요한 물품을 운반하는 단위가 다. 하루에도 수십대의 중량급 화물자동차들이 물품을 나르느라 수백리길을 달려야 하는 조건에서 무엇보다도 긴장한 것은 연유이다.

운수기동대의 운전자들은 절약은 곧 애국이라는 것을 심장에 새기고 한방울의 연유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곳 운수기동대에서는 우선 배차조치를 짜고들어 빈차운행을 없애고 배차 빈도를 줄였다. 배차 빈도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려 배차 빈도를 줄였다. 배차 빈도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려 배차 빈도를 줄였다.

운수기동대의 운전자들은 절약은 곧 애국이라는 것을 심장에 새기고 한방울의 연유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곳 운수기동대에서는 우선 배차조치를 짜고들어 빈차운행을 없애고 배차 빈도를 줄였다. 배차 빈도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려 배차 빈도를 줄였다. 배차 빈도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려 배차 빈도를 줄였다.

운수기동대의 운전자들은 절약은 곧 애국이라는 것을 심장에 새기고 한방울의 연유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곳 운수기동대에서는 우선 배차조치를 짜고들어 빈차운행을 없애고 배차 빈도를 줄였다. 배차 빈도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려 배차 빈도를 줄였다. 배차 빈도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려 배차 빈도를 줄였다.

특약기자 신 천 일



《이 등대장치는 연유를 전혀 쓰지 않아 좋고 보인 거리가 이전보다 몇 배나 길어져서 좋습니다.》

이것은 비단 평안북도배길표 식사업소 수운도 등대장의 기풍에 넘친 목소리만이 아니다.

최근 룡해운선 해운과학연구소 실 실험정비동무가 연구제작한 회전식 등대장치는 랩도, 수운도, 소수압도를 비롯한 서해상의 여러 등대설비에 걸쳐서도 호평이 대단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회전식 등대장치는 이전시기의 등대장치와 달리 태양빛을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한달에 평균 수백리

《이 등대장치는 연유를 전혀 쓰지 않아 좋고 보인 거리가 이전보다 몇 배나 길어져서 좋습니다.》

이것은 비단 평안북도배길표 식사업소 수운도 등대장의 기풍에 넘친 목소리만이 아니다.

최근 룡해운선 해운과학연구소 실 실험정비동무가 연구제작한 회전식 등대장치는 랩도, 수운도, 소수압도를 비롯한 서해상의 여러 등대설비에 걸쳐서도 호평이 대단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회전식 등대장치는 이전시기의 등대장치와 달리 태양빛을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한달에 평균 수백리

《이 등대장치는 연유를 전혀 쓰지 않아 좋고 보인 거리가 이전보다 몇 배나 길어져서 좋습니다.》

이것은 비단 평안북도배길표 식사업소 수운도 등대장의 기풍에 넘친 목소리만이 아니다.

최근 룡해운선 해운과학연구소 실 실험정비동무가 연구제작한 회전식 등대장치는 랩도, 수운도, 소수압도를 비롯한 서해상의 여러 등대설비에 걸쳐서도 호평이 대단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회전식 등대장치는 이전시기의 등대장치와 달리 태양빛을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한달에 평균 수백리

가물을 이겨내고 정보당 소출을 높인 비결

갑산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갑산군이 올해농사에서 최고 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물을 때마다 평양시 양어관리국의 종업원들은 대동강이 통제로 양어장이 되었다고 호호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그렇다. 맑은 물 끝없이 출렁이는 대동강은 오늘날 양어장정착을 촉진하게 만들어가는 이들에 의해 하나의 양어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충 성

갑산군이 올해농사에서 최고 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물을 때마다 평양시 양어관리국의 종업원들은 대동강이 통제로 양어장이 되었다고 호호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그렇다. 맑은 물 끝없이 출렁이는 대동강은 오늘날 양어장정착을 촉진하게 만들어가는 이들에 의해 하나의 양어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충 성

갑산군이 올해농사에서 최고 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물을 때마다 평양시 양어관리국의 종업원들은 대동강이 통제로 양어장이 되었다고 호호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그렇다. 맑은 물 끝없이 출렁이는 대동강은 오늘날 양어장정착을 촉진하게 만들어가는 이들에 의해 하나의 양어장으로 변모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 충 성

특약기자 전 철 주

불장난을 즐기는 자들은 무서운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조선반도에는 피폐당의 극악한 북침전쟁판으로 하여 또다시 침체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피폐당은 지난 10일부터 《북의 도발에 대비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확립》에 대해 떠벌이며 《2014 호국》호헌이라는 것을 역대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다.

피폐당이 해마다 이른바 《호국》의 간판을 내걸고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였지만 이번처럼 웅근 한계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특, 해, 공군과 해방전 방대한 병력과 수많은 기동장비들, 각종 합성체들과 전투기들을 총동원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려는 일찌기 없었다.

지금 피폐군부호전광들은 백령도와 영평도를 비롯한 서해연접지역들과 군사분계선일대는 물론 남조선 전지역에서 《전방군단 작전계획서행동》이니, 《서부도서방어호헌》이니, 《합동상륙호헌》이니 하는 각종 명목의 북침전쟁연습들을 련속 강행하고있으며 미제침략군과의 합동호헌도 여러 차례 진행할것이라고 떠벌어내고있다.

피폐당이 지난 시기에 비해 더욱 호전적인 《호국》호헌

을 벌려놓은것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대한 참수 없는 우롱이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업종한 도발이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우리 공화국을 거향한 도발적인 《호국》호헌들놈에 열을 올리며 북침전쟁분위를 고취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남조선피폐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우리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폐당은 이와 상반되게 서해연접지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정상적인 순찰군무를 수행하고있을 우리 합성과 군인들에게 총포사격을 가하고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싸이의 존엄과 체체를 훼손하는 배라살포를 면이 강행하며 북남관계개선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한편 《길 체인》이니, 미사일방위체계추진이니 하며 미국으로부터 《에트리오트 3》요격미사일을 끌어들이니, 미국의 잠수함을 투입하여 누구의 신형잠수함에 대비한 호헌을 벌린다는 하며 북침전쟁도발행동에 더욱

미쳐달라고있다.

이런 속에서 피폐들이 《호국》호헌을 역대 최대규모에서 벌려놓은것은 미국상선과 함께 북침핵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 침략의 도화선에 기어로 불을 달아보자는 것이다.

또한 범죄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의 무기한 연기와 미국미사일방위체계가담을 정당화하고 국심한 군기문란과 무정부행위로 땅바닥에 떨어진 피폐군의 사기를 추세워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내세우며 《안보》소동을 일으켜 사면초가의 《정권》을 위기를 모면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얼마전까지만도 고위급첩측이요 뉘오 하며 인이 끊게 떠들던 피폐당이 언제 그랬던가 싶게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실지로 대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론을 오도하여 대결정세를 가리우려고 위기를 모면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얼마전까지만도 고위급첩측이요 뉘오 하며 인이 끊게 떠들던 피폐당이 언제 그랬던가 싶게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실지로 대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론을 오도하여 대결정세를 가리우려고 위기를 모면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얼마전까지만도 고위급첩측이요 뉘오 하며 인이 끊게 떠들던 피폐당이 언제 그랬던가 싶게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실지로 대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론을 오도하여 대결정세를 가리우려고 위기를 모면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실은 도발에 미쳐달라고 전면전쟁의 불뿔치를 내내드는데는 다름아닌 피폐당이라는것을 고발해준다.

피폐집권자가 남조선을 전쟁불장난판으로 만들어놓고 남에 나가 《북쪽포기》니, 《동북아시아평화와 협력》이니 하는것을 아무리 떠벌어야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될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폐당의 북침핵전쟁행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강력한 선군의 총대로 침략자를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불을 즐기는 자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피폐당은 바로 4년전 《호국》호헌이요 뉘오 하며 불장난을 즐기다가 무서운 불벼락을 얻어맞은 영평도사건의 뼈저린 교훈을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피폐당의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행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주제103(2014)년 11월 13일 평양

전쟁의 불집을 더뜨리려는 위험천만한 망동

남조선 전지역에서 강행되고 있는 《2014 호국》복침전쟁연습이 위험천만한 양상을 띠고 본격화되고있다.

피폐호전광들은 이번 호헌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비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내놓고 떠벌어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용악한 정세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호국》호헌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다. 오는 21일까지 강행되는 이번 《호국》호헌에는 지난 시기의 4배이상인 33만여명의 피폐군병력, 기동장비 2만 3 000여대의 합정 60여척, 각종 비행기들이 투입된다. 이것은 이 전쟁연습이 시작된 1996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의 무력이라고 한다. 내용에 있어서도 《전방군단 작전계획서행동》, 《서부도서방어호헌》, 《해상, 해안침투호헌》, 《합동상륙호헌》과 미제침략군과의 합동호헌 등 극히 도발적이며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강행되고있다. 말대로 남조선 전역이 불장난판으로 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침핵전쟁



북침전쟁열에 들뜬 호전광무리

미국의 침략동맹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1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18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포위망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침략동맹조작행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이번이 미국이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 3각군사동맹구축의 돌격대기로써 해졌던 조종사간첩사건의 조작본인인 누구인가

지나 10일부터 백령도와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1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182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포위망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침략동맹조작행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이번이 미국이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 3각군사동맹구축의 돌격대기로써 해졌던 조종사간첩사건의 조작본인인 누구인가

지나 10일부터 백령도와

조작책동을 반대

로 한것도 미사일방위 체계의 작전적요구를 위한것은 목적을 두었고그 고 까발했다.

군사동맹을 구실로 미국이 남조선에 막대한 무기를 팔아먹고있으며 《조선반도사태》를 서울에 그대로 두려고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 한것도 미사일방위 체계의 작전적요구를 위한것은 목적을 두었고그 고 까발했다.

군사동맹을 구실로 미국이 남조선에 막대한 무기를 팔아먹고있으며 《조선반도사태》를 서울에 그대로 두려고 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기붕등탑확장본업대치우라

지금 남조선 피폐들이 반공화국시리모략행위 시작되었다. 피폐당은 심리모략의 도수를 높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과 지어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훼손하는 망동을 수없이 강행하였다. 그로 하여 동족대결정세는 국단으로 치달았고 북남관계는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얼마전 남조선에서 애기붕등탑을 철거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남조선침략자들은 심리전의 상장이 없어졌다고 야단을 치며 등탑철거행위를 다시 조사하게 하는 등 북박소동을 일으켰다. 뒤이어 피폐군부 장관 한민구는 애기붕등탑철거와 관련한 두 가지 동족대결정세는 사회불을 벌려놓고 《애정을 가졌던 등탑》이였다느니, 《자유와 평화를 전해주는 의미있는 탑》이였다느니 뉘오 하면서 새로운 전방대결설에 막사를 가할것이라고 떠벌이기가 하였다.

현실적으로 피폐당은 종전의 등탑보다 더 높은 철탑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애기붕평화공원》을 건설하려 하고있다. 수단 m크기로 설계된 《애기붕평화공원》에는 높이가 무려 54m나 되는 전방대와 6.25전쟁영웅상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심히 자극하는 시설물들과 심리모략행위에 리용될 대형전판까지 설치하려 하고있다. 그것이 북남사이에서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끌어오는 대결전판대, 전쟁등탑으로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것을 놓고도 피폐당이 북남관계개선을 안중에 없는 대결미치광이들이라는 것을 특특히 알수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앞에서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고 들어와서 대결과 긴장장화행동에 매여달리는 피폐당국을 단죄, 규탄하는 목소리를 세우게 울려나오고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남관계는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단 한결음도 앞으로 나아갈수 없다.》, 《또다시 상대불만을 자극하는 시시한 늘어놓는 것은 북남관계개선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애기붕평화공원》건설을 당장 중지할것을 피폐당에 요구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피폐당의 엄중한 도발행동과 관련하여 《이미 조준결과를 경고한바는 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있으며 각계 진보단체들과 애기붕주변의 주민들도 《정세 긴장과 안보불안을 격화시키는 분별없는 행위》라고 견결히 반대배격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존엄을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악랄하게 훼손하는 피폐당의 반공화국모략행동에 대하여 목과한집이 없으며 이미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피폐들은 저들의 무모한 망동으로 하여 조성될 업종한 사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애기붕등탑확장행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최종 남조선에서 서술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한 정보원제거대결에 대한 재판이 있었... (중략) ...

간첩사건조작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필자를 마흔하고 정보원의 미수가 빠져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이 파초장제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명부까지 만들어놓고 24시간 주야간감시와 미행의 그룹방을 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날같이 장악하여왔다. 또한 《안보》의 구실밑에 마구잡이로 정보를 남조하고 수사의 간판밑에 벌벌 모략장제들을 다 보냈던데도... (중략) ...

디를 마흔하고 정보원의 미수가 빠져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이 파초장제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명부까지 만들어놓고 24시간 주야간감시와 미행의 그룹방을 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날같이 장악하여왔다. 또한 《안보》의 구실밑에 마구잡이로 정보를 남조하고 수사의 간판밑에 벌벌 모략장제들을 다 보냈던데도... (중략) ...

디를 마흔하고 정보원의 미수가 빠져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이 파초장제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명부까지 만들어놓고 24시간 주야간감시와 미행의 그룹방을 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날같이 장악하여왔다. 또한 《안보》의 구실밑에 마구잡이로 정보를 남조하고 수사의 간판밑에 벌벌 모략장제들을 다 보냈던데도... (중략) ...

디를 마흔하고 정보원의 미수가 빠져있지 않은 곳이란 없다. 이 파초장제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명부까지 만들어놓고 24시간 주야간감시와 미행의 그룹방을 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날같이 장악하여왔다. 또한 《안보》의 구실밑에 마구잡이로 정보를 남조하고 수사의 간판밑에 벌벌 모략장제들을 다 보냈던데도... (중략) ...

확대되는 에볼라비루스감염증, 그를 막기 위한 노력

리베리아에서 피해 확대

리베리아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감염증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0일이 나라 보건당국은 지

시에라레온에서

시에라레온에서 5일 에볼라비루스감염증치료시설이 개원되었다. 프리타운근에 위치하고

에볼라비루스감염증치료시설 개원

있는 이 치료시설에서 특별히 준비된 전문의료인들과 전염병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치료시설은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위한 치료와 비루스의 전파를 막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양골라 출판보도들이 보도

양골라의 신문, 통신, 방송이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검고더것을 조롱화하고있는 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6일에 보도하였다.

양골라의 신문, 통신, 방송이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검고더것을 조롱화하고있는 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6일에 보도하였다.

양골라의 신문, 통신, 방송이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검고더것을 조롱화하고있는 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6일에 보도하였다.



조선이 국가친분을 폐하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을 전복하려는 적에게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대화도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었다. 대변인은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가지고 조선의 국가

지지를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아랍추장국연합 위무상이 최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였다. 그는 쿠스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행위가 계속되고있으며 특히 아크사사원에서의 탄압판행은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모독으로 단죄하였다. 아랍추장국연합은 팔레스티나-이스라엘전쟁을 끝장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폭력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광분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5일 이스라엘군은 동부부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쳐들어와 사원출입을 요하는 팔레스티나이슬람교도들을 향해 수질발의 최루탄과 고무총탄을 탄사하여 약 5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만행은 팔레스티나인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스라엘은 유래인정착촌확장정책등에도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5일 이스라엘당국은 동부부드스에 270여세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더 건설할데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처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조선중앙통신】